

06 자 퇴 와 검 정 고 시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판단 점검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한눈에	2
02 숫자만 모으면	3
03 점검표	4
04 마지막으로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다섯 가지 물음의 순서 — 어디서부터 물어야 하는가
- ◆ 이 결정에 걸린 사실 여섯 줄 — 확인된 숫자만
- ◆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넷 — 「고1 자퇴 1만 명」은 공식 표에 없습니다
- ◆ 정하기 전 열여섯 가지 점검표 ·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01 · 한눈에

앞의 다섯 편을 순서로

이 시리즈는 자퇴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이 편은 앞의 다섯 편을 「정하는 순서」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먼저 물으실 것	어디에 있나
1	힘든 것인가 계산인가	N1 — 여기서 갈립니다
2	휴학은 안 되는가	N4 —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3	무엇이 닫히는가	N2 — 요강 552줄
4	정시 계산이 맞는가	N3
5	돌아올 시점은 언제인가	N5

1번에서 갈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헛계산입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것이면 입시 계산이 답이 아닙니다.

2번을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퇴냐 계속 다니냐」 둘로만 보시면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출처: 앞의 다섯 편과 같습니다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기재요령·시행령,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2026년 8월 기준).

02 · 숫자만 모르면

이 결정에 걸린 사실들

무엇	숫자	어디서
고교 학업중단율 (2024학년도)	2.1%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20학년도	1.1%	// — 네 해 만에
수시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막아 둔 줄	552	2027 요강 집계
그중 학종	286	// — 가장 좁습니다
정시 원서	세 장	가·나·다군
돌아올 수 있는 시점	3분의 2	당해 학년 수업일수 기준

이 여섯 줄이 이 시리즈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런 이야기	사실은
「고1 자퇴가 1만 명이다」	공식 표에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전략적 자퇴가 늘고 있다」	통계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자퇴생이 대학을 더 잘 간다」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대학이 자퇴를 불리하게 본다」	이것도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 두 줄을 함께 보십시오. 유리하다는 근거도, 불리하다는 근거도 저희는 못 찾았습니다. 양쪽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다」와 다릅니다 — 저희가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03 · 점검표

정하기 전에 열여섯 가지

먼저 — 어느 경우인지

- ☐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 ☐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갈랐는가
- ☐ 힘든 것이면 상담 을 받아 보았는가
- ☐ 학업중단 숙려제 를 안내받았는가

다음 — 가운데 길이 있는지

- ☐ 휴학 이 되는지 학교에 물어봤는가
- ☐ 결석 이 쌓이고 있지 않은가
- ☐ 꿈드림 같은 기관을 알아봤는가
- ☐ 결정을 한 학기 미룰 수 있는가

그다음 — 무엇이 달하는지

- ☐ 가려는 대학이 검정고시를 받는지 확인했는가
- ☐ 성적 산출 방법 을 확인했는가
- ☐ 지역인재 를 쓸 계획이었는가
- ☐ 학교에 남아도 정시는 볼 수 있다 는 것을 아는가

마지막 — 돌아올 길

- ☐ 검정고시 응시 자격과 일정 을 공고에서 봤는가
- ☐ 돌아올 기한과 기준 을 정했는가
- ☐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 ☐ 혼자 하루를 짊 수 있는 아이인가

04 ·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결정이 맞는지
무엇이 달히는지	대학이 어떻게 볼지
돌아올 길과 시점	수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확인하실 자리	아이가 혼자 해낼지

오른쪽 칸을 자신 있게 말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그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랫줄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학교가 짜 주던 하루를 스스로 짊 수 있는 아이인가. 저희가 본 바로는 이 결정의 결과를 가른 것이 대개 그것이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여섯 편을 쓰면서 가장 조심한 것은 겁을 주지도 부추기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이야기되는 것에 견줘 확인된 것이 아주 적습니다. 확인된 것만 담았고, 확인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은 가정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 결정이 모르는 채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마지막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

Q. 답임 선생님과 상의해도 될까요?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가 절차를 아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휴학이 되는지, 숙려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돌아올 때 절차가 어떤지 — **이건 학교에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말하면 붙잡을 것 같아서」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는 붙잡는 것이 일이기도 합니다. 숙려제 자체가 그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정한 결정이 대개 낫습니다.

다만 학교가 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 대입 계산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이미 자퇴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 공고를 찾아 응시 자격과 다음 시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일정이 정해집니다.

둘 — 가려는 대학의 요강에서 「검정고시」를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입학처에 전화하십시오.

셋 — 하루 계획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학교가 짜 주던 시간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 스스로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일입니다.

넷 — 꿈드림 같은 기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검정고시 준비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이 닫힌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힘든 것인지 계산인지 먼저 가르고, 가운데 길을 알아보고, 무엇이 닫히는지 세어 보고, 돌아올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와 요강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검정고시 일정과 학적 절차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확인하십시오.